

전북연구원, 2025년 ‘10대 연구 아젠다’ 선정

미래산업 성장엔진 점화·민생경제 강화·글로벌화와 스포츠대회 발굴 등 주요 과제로 추진 계획

전북자치도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싱크탱크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이 민선 8기 비전과 목표 달성을 뒷받침할 2025년 10대 연구 아젠다를 선정했다. 전북연구원은 12일 이슈브리핑(315호)을 통해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의 비전과 ▲도민경제 부흥 ▲농생명산업 수도 ▲문화·체육·관광거점 조성 ▲새만금도약·균형발전 ▲도민행복·희망교육 등 도정 5대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연구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10대 연구아젠다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10대 아젠다는 ▲백년대계 미래산업 성장엔진 점화 ▲실감 민생경제 강화 ▲농생명산업으로의 혁신과 대응력 강화 ▲문화관광자원의 글로벌화와 메가스포츠대회 발굴 ▲사람·기업·자본이 모이는 새만금 복합단지 개발 ▲전북형

일자리와 워라밸에서 찾는 인구해법 ▲인구감소시대 초광역권 생존 전략 ▲생애주기 맞춤형 돌봄안전망 강화 ▲청정환경 자원의 고부가가치화 ▲지역이 키우는 인재, 인재가 키워가는 지역이다. 먼저 ▲도민경제 부흥은 ‘전북의 게임체인지형 성장동력 창출’로 전북 미래의 산업적 기틀을 마련해나가기 위해 ▲백년대계 미래산업 성장엔진 점화를 첫 번째 아젠다로 제시했다. ▲농생명산업 수도 부문은 ‘농업·농민·농촌이 상생하는 농생명산업’을 창출하고자 ▲농생명산업으로의 혁신과 대응력 강화를 세 번째 아젠다로 제시하고 농생명산업 지구 전문인력 육성 방안 등의 연구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산업 거점 조성 부문은 ‘K·문화·관광 자원의 연계와 연대’를 통해 전북만의 전략을 찾고자 ▲문화관광자원의 글로벌

컬화와 메가 스포츠대회 발굴을 네 번째 아젠다로 제시했다. ▲새만금도약·균형발전 부문은 ‘새만금 킬러콘텐츠 발굴과 지역 소생’을 위해 국가거점도시로서의 ▲사람·기업·자본이 모이는 새만금 복합단지 개발을 다섯 번째 아젠다로 제시했다. ▲도민행복과 희망교육 부문은 ‘주민 복지와 더불어 교육’의 전략을 가지고 ▲생애주기 맞춤형 돌봄안전망 강화를 여덟 번째 아젠다로 제시했다. 또한, ▲청정환경 자원의 고부가가치화를 아홉 번째 아젠다로 제시해 도 기후대응기금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열 번째 아젠다로 ▲지역이 키우는 인재, 인재가 키워가는 지역을 제시하고 중추력 정주형 인재양성 직업교육 운영 방안 등을 주요 연구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연구원 관계자는 “10대 연구 아



젠다를 구체화하기 위해 정책 대안 제시를 위한 포럼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연구성과가 확산되고 피드백될 수 있도록 정책 환류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관 기자

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 시행 출산후 지원신청 60일로 연장...서비스 이용도 90일로 확대

전북자치도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체계적인 산후 관리 지원을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정부 지원 바우처 서비스다.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신청 기간이 기존 출산 후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되며 바우처 유효기간도 기존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나 출산가정이 더욱 여유롭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친정어머니도 일정 교육 과정을 이수할 경우 건강관리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되면서 가족 중심의 돌봄 환경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직계가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교육 이수 후 제공 인력으로 활동할 경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출산가정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가정이다. 또한, ▲회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둥이 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 산모 ▲미혼보 산모 등은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며, 올해부터는 ▲미숙아 출산가정도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서비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할 수 있으며,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정혜민 기자

김동구 도의원, “새만금신항 무역항 지정 방식 도민들에 공개해야”

제41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서 “새만금신항, 군산항 연계해 One-Port 전략 추진” 촉구



김동구 도의원

전북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은 지난 11일 제41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지사는 새만금신항 관련 지자체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새만금신항은 군산항과 연계된 One-Port 전략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새만금신항의 무역항 지정 방식에 대한 군산과 김제 간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

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는 작년 7월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새만금신항의 무역항 지정 방식에 대해 세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면서 “자문위원회는 새만금신항을 군산항과 연계한 One-Port 전략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도지사는 자문위원회의 결과를 비공개로 처리하며 무역항 지정은 해양수산부의 권한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답변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애초에 새만금신항은 지

자체 관할권 논쟁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해수부의 의견을 기다린다는 중립적인 의견을 내세워 두 지자체의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며 “도지사는 내년 새만금신항의 개항을 앞둔 시점에서 더 이상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중재자로 나서고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새만금신항의 무역항 지정 방식에 대해 도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새만금신항 건설기본계획에 따르면 새만금신항은 군산항의 수심 부족으로 인한 항만 능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되는

항만으로 명시돼 있다”며 “이는 새만금신항은 군산항과의 연계를 염두에 두고 시작한 사업이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국내외 항만 정책 또한 Two-Port 전략보다 One-Port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중국은 ‘1성(省) 1항만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은 인접한 지역의 항만을 연계해 공동 개발 및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내에서는 부산항과 부산신항이 부산항만공사를 중심으로 일원화된 관리 시스템으로 운영 중이다”고 강조했다. /군산=지승길 기자

전북도, 보조사업 담당자 대상 지방보조금 교육 실시

전북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이 전북자치도 난임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난임치료휴가 활성화 및 난임 지원사업의 범위 확대를 촉구 하고 나섰다. 서 의원은 지난 11일 제416회 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전국 난임환자가 25만 명을 넘어서고 국내 부부 7쌍중 1쌍이 난임부부”라며 “보건복지부와 전북자치도가 난임 지원 정책을 점차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에게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서도 난임치료휴가제도의 사용 실적은 전국 평균 단 1% 수준에 불과한 실정인데, 전북자치도는 그 중 최하위 수준이다. 지난 2023년 조사결과 난임치료휴가제도를 운영하는 도내 상시근로자 5

인 이상인 사업체 7천397곳 중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답한 업체가 단 한 곳도 없었다. 도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서도 늘어나는 난임기술 통계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 해 난임치료시술 휴가를 사용한 직원은 단 5명에 불과했다. 서 의원은 “난임치료에는 극심한 신체적·심리적 고통은 물론이고 치료비용과 치료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신체적 고통을 제외한 심리적 어려움이 나 만만치 않은 치료비용과 시간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세밀한 지원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비용적 측면에서는 지원이 확대되고 있지만 가임기 맞벌이 부부가 대부분인 현실을 감안하면 휴가시간을 망놓고 낼 수 없는 직장문화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관기자

권요안 도의원, 전주-완주 통합 정책 점검 토론회 열어

도내 14개 시군 균형발전 통한 지방자치 실현... “지역간 통합은 주민 주체로 결정할 문제”



권요안 도의원

전북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이 지난 10일 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시대, 지역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권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을 맞아 도내 14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완주-전주 통합에 대해 정책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

최하게 됐다”며 취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공익법률센터 농본대표로 활동 중인 하승수 변호사의 주제발표에 이어 권요안 의원의 사회로 이상민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송병주 완주전주통합반대완주군민대책위 선임대표, 김정흠 임실군의회 의원, 김재구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성호 전북자치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 국장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하승수 변호사는 “특별자치도는 지방분권을 선도하고 집중이 아닌 분산을 통해 수도권 일극집중 체제를 해소하고 지역을 활성화하는데 기

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2006년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부의 권력집중과 제주시로의 인구집중 현상이 심해지면서 읍면 지역은 오히려 인구감소위협 수준으로 내몰리며, 오영훈 도지사는 3개의 기초지자체를 부활시키기 위해 주민투표를 제안한 상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상민 공동운영위원장은 “완주-전주 통합은 명분과 논리보다 이해관계가 가장 크게 작동해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 합리적인 통합방안이나 필요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병주 선임대표는 “완주-전주 통합

은 지역균형발전,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으로 자치권이 없는 행정단위로 완주군의 발전, 주민 복지를 생각할 수 있겠냐”며 “주민 의사도 충분히 수렴하고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권요안 의원은 “지자체 간 통합문제는 지역의 주민들이 주체가 돼 결정할 문제이며 어느 일방이 마음대로 통합을 추진해서는 안된다”면서 “향후 전북특별자치도법이나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등의 독소조항을 개정해서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을 줄이고 보다 민주적인 논의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완주=김병곤 기자

김슬지 도의원,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계속 돼야”



김슬지 도의원

전북자치도의회 김슬지 의원(비례·기획행정위원회)이 11일 제416회 임시회에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슬지 의원은 “지난 1월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고교 무상교육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 거부권 행사로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시·도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해, 모든 국민에게 공평해야 할 공교육의 지역간 격차 발생, 질적 저하, 지방교육재정 파탄을 초래할 것이란 주장이다. 김 의원은 “헌법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는 모든 국민에게 보장돼야 하며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고 강조하며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이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관 기자

겨울철 빙판길 낙상사고 주의!

낙상사고 예방법

1.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장갑 착용**
2.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 착용**
3. 외출 전 **스트레칭 필수**

눈과비로 인한 빙판길 **안전하게 보행 하세요!**

도, ‘탄소중립 기본계획’ 추진상황 첫 점검 착수

전북자치도, 탄소중립 정책 실효성 강화 위한 점검 착수 ‘탄소중립 실현 성큼’

탄소중립 정책 이행력 확보로 실질적 성과 도출 기대

전북자치도가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기본계획(2024~2033)’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탄소중립기본법’ 제13조와 ‘전북자치도 탄소중립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라 매년 전년도 추진 실적을 점검하는 것으로, 지난해 도가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한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온실가스 감축 대책 7개 부문 72개 과제와 △대응 기반 강화

대책 9개 부문으로 환경부 점검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체적으로 진단하고 평가하게 된다.

점검 절차는 ▲점검 계획 수립 ▲추진 실적 검토 ▲결과 보고서 작성 등으로 이루어지며 각 부서는 자체 점검과 평가를 진행하고 주관 부서인 탄소중립정책과는 이를 종합해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작성된 결과보고서는 전북자치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친다.

위원회는 과제별 계획 수립의 충실성,

추진 과정의 적절성, 성과 달성도 등을 점검하고, 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 심의·의결 후 전북자치도는 최종 결과보고서를 5월 31일까지 환경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후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7월 31일까지)와 전북자치도의회에 보고해 점검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첫 번째 점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오는 19일 부서 담당자 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점검 목적과 점검표 작성 방법을 공유하고 부서 간 애로 사항

을 청취해 효율적인 점검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점검을 탄소중립 정책 이행력 확보의 중요한 계기로 삼아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송금현 도 환경산림국장은 “탄소중립은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닌 지역경제와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전략이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정책의 실행력을 제고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전북, 청년참여예산 일환 ‘취업지원 패키지’ 사업 참여자 모집

면접용 정장·사진 촬영·자격증 응시료까지 일체 지원…온라인 신청 간편화, 전북청년허브센터 통해 참여 가능

전북자치도와 전북청년허브센터(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도내 청년들의 취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 취업지원 패키지’ 사업을 본격 추진,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청년들이 직접 제안하고 공감을 얻은 정책을 예산에 반영하는 2025년 청년참여예산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취업 준비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 항목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전북자치도에 거주하는 18~39세 청년으로, ▲면접비 ▲면접 정장 대여비 ▲면접 사진 촬영비 ▲자격

증 응시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면접비와 면접 정장 대여비는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1회당 최대 5만 원씩 2회까지 지원하며 면접 사진 촬영비는 최대 2만 원을 지원한다.

자격증 응시료는 2025년 실제 응시한 시험이라면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1회당 최대 5만 원씩 2회까지 지원 가능하다.

지원 가능한 시험은 어학시험,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전문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 등이다.

신청은 전북청년허브센터 홈페이지

(www.jb2030.or.kr)에서 가능하며 세부 내용은 전북청년허브센터(063-227-2030, 063-220-8938)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우 도 인구청년정책과장은 “청년 참여예산을 통해 청년들이 직접 기획한 정책이 실제로 실행되는 만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 취업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새만금개발청, 中 엔청시와 협력 관계 강화…한중산단 투자 활성화 모색

장쑤성 엔청시 당시기 접견, 새만금 투자 환경 소개…한중 산단 협력사업 발굴 및 입주기업 간 교류 확대 추진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12일 한중 산업협력단지(이하 산단)의 협력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중국 중 한중 산단 소재지 중의 하나인 장쑤성 엔청시 저우빈(周斌) 당시기와 접견했다고 밝혔다.

장쑤성 엔청시는 지난 2017년 12월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 한중(엔청) 산업단지로 지정됐으며, 산업도시 융합 핵심 지역에 최근 5년간 기아자동차, SK, 모비스, 경신전자, 신한은행 등 83건, 약 130억 달러의 한국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저우빈(周斌) 당시기 일행의 방문으로 새만금개발청은 한중 산단의 협력 가능 사업을 모색하고 새만금 국가산단의 투자 환경을 소개해 양국 간 투자유치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자 한다. 김경안 청장과 저우빈(周斌) 당시기



새만금개발청은 12일 한중 산업협력단지의 협력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한중 산단 소재지 중 하나인 장쑤성 엔청시의 저우빈 당시기와 접견했다.

앞으로 지속적인 정보 교류와 네트워크 강화로 협력 관계를 더욱 견고히 다져 나가기로 했다.

이날 저우빈(周斌) 당시기 일행은 새만금에 대한 소개를 청취하고, 한중 산단 내 합작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한 입

주기업 성일하이텍을 방문해 새만금 현지 상황을 직접 살펴보고였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최근 새만금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핵심 인프라 구축, 규제 개혁 등의 진(進)기업 정책 추진으로 11조 2천억 원의 민간투자 유지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또한, 저우빈(周斌) 당시기에게 “양 지역 간 경제 통상투자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라며 양측 산단 입주기업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저우빈(周斌) 당시기

는 양국 정부가 지정한 국내 유일의 한중 산단인 새만금의 발전 속도와 투자 환경에 큰 관심을 보이며 입주기업 전반에 걸친 교류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최준호 기자

농식품부, ‘혁신 프리미어 1000’ 지원 우수기업 모집

스마트농업·푸드테크·그린바이오 분야 우수기업 25곳 선정…금융·컨설팅 등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날 1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2주간 농식품 신산업 분야 우수기업을 모집 공고한다.

농식품 신산업은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3개 분야로, 우수기업에 선정된 25개사는 내년 말까지 범부처 종합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혁신 프리미어 1000’ 사업의 지원을 받는다.

지난 2024년 12월 농식품부와 금융위원회 등은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혁신 프리미어 1000 도입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동 프로그램은 미래 유망산업과 글로벌 초격차 산업 등 국가 주요 산업 내 우수기업을 각 부처에서 선정하고, 해당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금융융합지원반(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

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성장금융)이 맞춤형 금융·비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선정된 기업은 대출 금리 최대 1.3%p 감면, 대출한도 우대, 보증료를 최대 0.3%p 감면, 보증비율 95% 적용(평균 85% 대비 10%p 확대) 등 우대 금융지원과 함께 투자유치(IR, Investor Relations), 해외판로 개척, 경영·기술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 ▲스마트농축산(수직농법, 스마트농업), ▲그린바이오(곤충사육, 농업용 미생물, 종자개발·육종, 동물용 의약품, 식품소재/첨가물, 천연추출물), ▲푸드테크(간편식, 케어푸드, 대체식품, 푸드 업사이클링)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농식품 중소·중견기업으로, 세부사항은 농식품부

누리집(알림소식)공지·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문을 참고해 25일 오후 6시까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투자정보 플랫폼(이하 ASSIST, assist.apfs.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신청서와 서류는 각 산업별 전문가 심의위원회와 정책금융기관의 적격성 검증을 거쳐 3~4월 중 최종 선정·통보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윤원섭 농업정책관은 “앞으로도 농식품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적절한 시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정책금융기관과 협력할 것”이라며,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농식품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신천지자원봉사단 팔복예술공장 일대 환경정화

지난 11일 신천지자원봉사단 전주지부는 환경보호 캠페인 ‘자연아 푸르자’를 약 2시간 동안 진행했다. 봉사자 50여 명이 전주시 팔복동 팔복예술공장 일대부터 더메이 호텔까지 약 2km 구간 버려진 쓰레기와 배수로에 오려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해 깨끗한 거리를 만들었다.

최종일 지부장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앞으로 더욱더 빛과 소금이 되는 봉사활동을 연계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최준호 기자



내장산국립공원, 15일부터 탐방로 일부 통제

봄철 산불예방 목적… 위법행위 집중 단속도 나서

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한정동)는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산불위험이 다소 높은 일부 탐방로에 대해 이달 15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출입이 통제되는 탐방로는 까치봉능선삼거리~순창사재(2.6km), 장성사재~상왕봉(4km), 구암사~백학봉 능선(0.9km) 총 3개 구간 7.5km이며, 그밖에 탐방로는 정상 개방한다. 자세한 산불통제정보는 국립공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국립공원 내 흡연, 취사 및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 위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나설 예정이며, 불법행위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재양 탐방시설과장은 “국립공원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산불예방에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며, 통제로 인한 탐방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확인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정음=김정인 기자



백종일 전북은행장, ‘고향사랑’ 500만원 기부 동참

JB금융그룹 전북은행 백종일 은행장은 12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북특별자치도 13개 시·군에 500만원을 기부하며 고향사랑을 위한 기부 실천에 동참했다.

이 날 기부 외에도 백 은행장은 지난 달 17일 임원 및 부·지점장들과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임직원의 자발적 동참을 독려하는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

백종일 은행장은 “지역사랑과 발전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라는 좋은 제도에 지속적으로 동참 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전북은행은 앞으로도 지역 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에 적극 동참하며 지방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전북은행, 2025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2,000만원 전달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지난 11일 전북은행 본점 1층에서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회장 이선홍)와 ‘2025 인도주의 활동을 위한 적십자 특별회비’ 2,000만원 전달식을 실시했다.

전달식에는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한규 사무처장, 전북은행 박성훈 부행장 등이 참석했으며,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적십자 특별회비 2,000만원씩을 전달해 현재까지 총 3억 6,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전북은행은 이 날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특별회원증을 전달 받았다.

박성훈 부행장은 “장기화된 고물가와 경기침체 등으로 기부문화가 위축되지 않도록 지역은행으로서 올해에도 변함없이 특별회비 지원에 나서게 됐다”며,

“기후변화에 따른 도내 재난재해에 대비하고 이재민과 취약계층을 돕는 인도주의 사회공헌활동에 지속적으로 동참하며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은행은 2007년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은행으로서 선한영향력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그리고 2020년 대한적십자사 주관 법단체 5억원 이상 고액기부 모임인 RCSV(RedCross Creating Shared Value) 가입과 ‘치매어르신 배회감지기 지원’, ‘수해 및 화재 긴급구조키트 나눔’, ‘희망풍차 나눔 걷기 캠페인’ 등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 전개로 지역 사회에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최준호 기자

정읍시, ‘축산농가 사료경영 안정 지원사업’ 신청 접수

사료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운데 정읍시가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이자 지원에 나선다.

시는 국제 곡물 가격 상승 등으로 사료비 부담이 급증한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축산농가 사료경영안정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오는 21일까지 진행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총예산은 4억6000만원으로, 지난해 사료구매 정책자금 배정 대상인 429농가(655억원)에 대한 이자 지원금이다. 다만, 지원 대상 중 실제 대출을 실행한 농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규모는 지난해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금리(1.8%) 중 0.4%~1.8%에 해당하는 이자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우 50두 미만 농가는 1.8%, 50두 이상 100두 미만 농가는 1.3%, 한우 100두 이상 농가와 그 외 축종 농가는 0.4%의 이자 지원을 받는다. 사육두수 기준은 지난해 사료구매 정책자금 신청 당시의 자료를 따른다.

신청을 원하는 축산농가는 대출기관에서 대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시는 서류 검토 후 내달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2025년 메이드마켓 입주 창업가 모집

군산시는 수제 장작 분야 청년 창업가의 성장을 지원하는 군산메이드마켓에 입주할 (예비)창업가를 모집한다. 군산메이드마켓은 군산시 월명동(월명성당 옆)에 2020년 6월에 개소하여, 1층과 2층 연 면적 206㎡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군산메이드마켓 입점 신청 자격은 군산시에 주소를 둔 만 19세~39세 청년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초기 창업자 또는 예비 창업자이며 모집인원은 6명이다.

모집 분야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독창적이고 개성있는 아이템을 가진 패션, 공예, 리사이클링, 리빙 등 수제 장작 전 분야이다.

모집 기간은 오는 21일까지이며,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 심사 완료 후 3월 5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신청은 군산시청 6층 기업지원과를 방문, 접수하면 된다.

최종 선정된 창업가에게는 상시 판매 및 전시 가능한 창업 공간과 창업지원금 630만원을 제공한다. 또한 창업 교육과 컨설팅, 창업바람표 참여 등 온·오프라인 판로 확보도 함께 지원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누리집 고시 공고를 참고하거나 군산시 기업지원과(454-4392)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공동육아 ‘품앗이’ 사업 본격 운영

정읍시 공동육아 품앗이가 본격 시작된다. 시 가족센터는 지난 11일 공동육아나눔터에서 ‘품앗이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이번 발대식은 지역 내 자발적인 육아 공동체를 지원하고, 부모들이 함께 육아의 어려움을 나누는 ‘품앗이’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33가정이 참여해 돌봄 품앗이 활동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다양한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품앗이’ 사업은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소모임을 구성해 육아 정보를 공유하고, 놀이와 체험활동을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다. 시 가족센터는 품앗이 모임을 위한 공간 제공은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며 육아 지원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인구감소완화…맞춤형대응

작년 12월 기준 258,047명 1년간 1,933명 감소… 인구감소를 전북 시군 중 3위

2024년 군산시 인구감소 추세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12월 기준, 군산시 주민등록 인구는 지난 1년간 1,933명이 감소한 258,047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번 결과는 군산시의 2024년도 인구 현황을 통해 분석됐다.

군산시는 2016년 이후 매년 2,000명 이상 인구가 감소해왔다. 그러나, 2024년에는 감소 폭이 2,000명 미만으로 줄어 들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2,487명 감소에 비해 22.3% 완화된 수치다.

2024년 월별 인구감소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3월이 354명으로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2월이 312명 감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6월 68명, 7월 79명, 10월 40명, 11월 49

명 등 두 자릿수 감소를 기록한 달도 있었다.

자연 증감 부분에서는 2023년 동월 대비 출생 983명, 사망자 수 2,263명이었던데 비해 2024년 출생아 수 1,000명(17명 증가), 사망자 수는 2,372명(109명 증가)로 나타났다.

사회적 증감 부분에서는 2024년 전입 12,782명, 전출 13,344명으로 순 유출인원은 562명으로 작년 1,222명 대비 660명이 줄어들었다. 주민 전출·입 사유는 교육(▲713명)·직업(▲398명)·주택(▲94명) 순으로 파악됐다.

연령대별 구성 비율은 50대가 17.7%로 가장 높았고, 60대(16.2%), 70대 이상(15.3%), 40대(15.2%), 30대(10.1%), 20대(9.83%), 10대(9.84%), 10대 미만

(5.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인구(65세 이상)가 전체 인구의 23.0%로 전년 대비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소년 인구(0~14세)는 10.9%로 전년 대비 0.4% 감소했으며, 청년인구(18~39세) 역시 0.5% 줄어든 21.7%로 파악됐다.

전북특별자치도 시군별 인구증감률에서는 군산시가 14개 시군 중 -0.74%를 기록해 세 번째로 인구감소율이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1위는 완주로 1.48% 상승, 2위는 순창으로 0.22% 상승했다.

이용진 인구대응담당관은 “인구구조에 맞는 맞춤형 인구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경제·관광 분야 주요 신규사업 발표

민생경제·문화관광·체육진흥 등 3개 분야 37개 사업 추진… 130억 6,300원 투입

익산시가 지난 1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올해 경제·관광 분야의 주요 신규 사업을 발표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익산시는 ▲민생경제 활성화 ▲문화·관광자원 확충 ▲체육진흥 사업 등 3개 분야 37개 신규 사업에 130억 6,800만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익산시는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기반을 마련하고 관광 기반을 확충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 민생경제 활성화 사업. 익산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은 ▲전북 익산형 일자리 공동물류·공동마케팅 지원 ▲청년희망도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민간주도

스타트업 스케일업 실증지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등이다.

▶ 문화·관광자원 확충 사업. 익산시는 풍부한 문화유산과 자연경관을 활용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방문객들에게 더욱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다.

대표적인 신규 사업으로 ▲반려동물친화 관광도시 조성 ▲고구마(수) 축제 ▲세계유산 등재 10주년 기념사업 ▲고백 종갓집 활용사업 등이 있다.

▶ 체육진흥 사업. 시는 부송동 310-3번지 일원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익산문화체육센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진행한다. 파크골프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시민 건강 증진과 여가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올해 내실있는 신규 사업 추진으로 관광·체육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 경제의 신속한 회복과 지역 사회 발전을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배석희 경제관광국장은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주민 손으로 만든 정읍, 관광두레사업 본격 시동

정읍시·한국관광공사 맞손… 관광 관련 사업체 창업·운영 지원, 공동체 기반 관광 생태계 조성

정읍의 매력을 가장 잘 아는 주민들이 직접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관광두레사업’이 본격화된다.

지난 12일 정읍시와 한국관광공사는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두보로 ‘관광두레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이학수 시장과 오충섭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는 정읍 시청에서 만나 ‘관광두레 조성사업’ 업무협약서에 서명하며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은 시가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관광두레 신규 지역으로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관광두레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숙박, 식음, 여행, 체험, 기념품 등 관광 관련 사업체를 창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주민



지난 12일 정읍시와 한국관광공사는 ‘관광두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동체 기반의 지속가능한 관광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시는 관광두레 PD 활동 지원을 비롯해 관광두레사업 관련 행정 지원과 홍보를 담당한다. 한국관광공사는 관광두레 PD의 역량 강화, 주민사업체 발굴

과 창업 지원, 관광콘텐츠 홍보 마케팅 등을 맡는다. 이번 협약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이를 통해 시는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관광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관광도시로 거듭날 계획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다이로움, “새로운 앱에서 만나요”

‘익산 다이로움’ 앱 개편… 실물 카드 결제·앱 결제·충전·환불 등 서비스 이용 일시 중단

익산사랑상품권 ‘다이로움(多로움)’이 오는 3월 새움을 입는다.

익산시는 다이로움 운영대행사가 변경됨에 따라 신규 앱을 출시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선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그동안 ‘작한페이’ 앱을 통해 다이로움 서비스를 제공해 온 익산시는 오는 3월 새 앱 ‘익산 다이로움’으로의 개편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3월 6일까지 10일 동안 다이로움의 모

든 서비스 이용이 일시 중단된다.

해당 기간 실물 카드 결제와, 앱 결제, 충전, 환불 등 다이로움 서비스가 모두 잠시 멈춘다. 이는 안정적인 효율적인 원활한 데이터 이관과 플랫폼 구축을 위한 필수 과정이다.

신규 앱은 더욱 편리하고 발전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우선 위젯 기능이 더해져 빠른 충전·결제가 가능하다. 시는 또 모바일 쿠폰형 상품권 제도를 새로 도입해 다양한 정책에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개편 후 다이로움 택시 앱을 통해 자동결제를 한 승객에게는 10% 추가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익산 다이로움’ 앱은 오는 3월 7일부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기존에 발급받은 다이로움 체크카드(농협·하나·신협·전북)는 별도 재발급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신규 앱에서 본인 인증을 완료해야 결제가 가능하다.

/익산=최준호 기자



한문화발상지 익산, 정체성 바로 세운다

문화유산 보존관리 강화·역사 정체성 확립·관광 인프라 구축

익산시가 ‘한(韓)문화 발상지’라는 역사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배석희 익산시 경제관광국장은 지난 12일 정례브리핑에서 “고조선 중왕이 남쪽으로 내려와 뿌리를 내린 익산은 마한과 백제로 이어지는 한문화 발상지”라며 “시민 역사 자긍심을 고취하고 이를 익산의 미래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시는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마한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관리 강화 ▲역사 정체성 확립 ▲위상과 자긍심 고취 ▲관광 인프라 구축이라는 4대 추진 전략을 수립했다.

우선 지난해 시는 신청사 개청에 맞춰 시민의 날을 고조선 건국 일인 개천절 10월 3일로 변경하고, ‘위대한 도시 그레이트(GREAT) 익산’ 도시브랜드(BD)를 선포했다. 새로운 익산 시대 출범을 기념하며, 1969년 시작된 마한문화대전을 부활시키기도 했다.

시는 마한 문화유산을 정비하는 사업에도 매진한다.

이 중에서도 농사를 위해 축조된 저수지 ‘황등제’ 정비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황등제는 일부 발굴 조사 결과 벽골제(AD 330)보다 600~700년 앞서 축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황등제가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수리 제방인 셈이다. 시는 올해부터 황등제에 대한 연차적 발굴 조사를 통해 마한문화의 연관성을 밝혀내고 복원 정비의 기초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남아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익산 황등호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고, 제방 인근에 황등지구 배수 개선 사업과 연계 우수지, 산책로 등을 갖춘 수변공간을 구축할 예정이다.

오는 18일에는 ‘익산 세계유산센터’에서 마르사지와 일본 아스카테라 사리장엄구 학술회의가 열린다. 또 ‘관세음응금기’ 한글 번역본 발간을 통해 백제왕도 익산의 가치를 확산하고, 7월에는 백제왕궁과 미륵사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0주년을 기념하는 축제의 장도 마련한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군산대, ‘라이즈 동행 협업회의’ 개최

군산시가 대학과 함께 학생인구 감소, 지방대 위기 등 지역 교육 현안의 해결책을 적극 모색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시는 ‘라이즈(RISE) 동행 협력 지역발전 프로젝트 협업회의’를 개최했다.

라이즈(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는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 체계로 대학이 지역 혁신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하여 대학을 지원하는 교육부의 정책이다.

지난 11일에 열린 회의에서는 군산시 라이즈 제안사업 담당자 20여 명과 군산대학교 교수 10여 명이 참석했

다. 참석자들은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 논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 가운데 지역 혁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과 연계 가능한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도 진행됐으며, 새만큼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전략, 지역 맞춤형 고용분석 및 일자리 지원, 이차전지 인력 양성 등 다양한 의제가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이번 회의에서 나온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토대로 대학과 지역이 동반성장을 이룰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구체화할 계획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농식품바우처사업 신청 접수 시작

정읍시가 저소득층 가구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고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한 농식품바우처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오는 17일부터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은 임신부, 영유아,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신선한 농산물을 제공해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돕는 동시

에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는 정책이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인 가구 기준 월 4만원, 4인 가구는 월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된 바우처는 전자카드 형태로 제공되며 지역 내 지정된 농산물 판매처에서 사용할 수 있다.

농식품바우처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ARS전화(1577-0857), 온라인(농식품바우처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전북형 창업패키지사업’ 참여기업 모집

군산시와 국립군산대학교가 ‘2025년 전북형 창업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오는 26일까지 모집하는 ‘전북형 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내에 사업장(본사)을 보유한 창업 5년 이내 기업 15개 회사를 선정해 최대 6천만 원까지 사업화 자금을 지원 하는 내용이다.

군산시와 국립군산대학교는 이번

사업이 매출 부진과 자금 부족으로 인해 5년 이내 창업기업이 겪는 창업 테스벨리를 극복하도록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립군산대학교 창업지원단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이메일(startup@ksnu.ac.kr)이나 전화(063-469-8965~8)로도 문의하면 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고창군,신혼부부·청년주거복지지원나서

부부 연소득 합산 8천만원·청년 4천만원 이하 ‘주택 대출이자 지원’ 내달 14일까지 접수

올해 고창군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본격 시작됐다. 12일 고창군에 따르면 ‘2025년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신청자를 내달 14일까지 접수한다. ‘신혼부부 주택대출 이자지원’은 2023년 심덕섭 고창군수의 공약사업으로 첫 시행됐다. 이후 조례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을 청년까지 확대했고, 신혼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지원 횟수를 3년에서 자녀가 있을 경우, 최대 5회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바꿨다.

군은 1억5000만원의 군비를 편성해 가구당 대출 잔액의 2%이내(최대 2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고창군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전세 대출 뿐만아니라, 주택 구입시에도 대출이자를 지원해 사업의 실효성을 한층 강화했다.

신청 자격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및 청년이다. 신청일 기준 대상자 모두 6개월 이상 고창군 주민등록을 뒤야 하며, 부부 연소득 합산 8000만원, 청년은 4000만원 이하야 한다.

신청은 내달 14일까지이며,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 및 자격 검토 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고창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지원사업이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안정적인 보금자리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주거복지 정책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슬레이트 교체 지원사업 추진

27억1천만원의 예산 확보, 주택 600동·비주택 60동·지붕개량 60동 지원 계획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석면으로 인한 시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5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관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을 원하는 건축물 소유자로, 주택 슬레이트는 최대 700만원, 비주택은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전액 지원, 지붕 개량은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슬레이트 철거와 동일 면적 내에서 최대 1,000만원 지붕개량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2025년부터는 노인·어린이 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올해 총 27억1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총 720동의 슬레이트(주택 600동, 비주택 60동, 지붕개량 60동)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제시는 석면으로 인한 시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5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신청은 1차로 이달 말까지 진행되며, 이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은 건물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시민들이 슬레이트에 포함된 발암물질로 인한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생활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심덕섭 고창군수, 중앙부처 찾아 주요 현안 건의

한국교통연구원·행정안전부 등 방문해 신규사업 반영 검토 요청 및 재정지원 요청해

심덕섭 고창군수가 12일 중앙부처를 찾아 고창군 주요 현안사업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먼저, 심 군수는 한국교통연구원을 방문해 김영찬 원장을 면담하고 ‘서해안 고속철도 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을 위한 긍정적 검토를 요청했다.

한국교통연구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이다.

이어 국토교통부 우정훈 철도정책과장을 만나 고창군의 최대 현안사업인 서해안(새만금-목포) 철도 건설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건의했다.

고창군은 서해안철도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5개 시·군과 힘을 모아 국가철도망 노선 반영 결의문을 채택하고, 군민 서명운동 등을 추진하며 서해안 철도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를 방문한 심 군수는 하종목 지방재정국장과 면담을 진행하며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재정지원을 건의했다.

고창군은 한빛원전과 직접 경계를 맞대고 있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고 있음에도 원전이 소재하지 않아 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주민의 안전을 책임질 지역 방재 사업을 위한 재정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을 만나 집중호우 시 하천수위 상승에 따라 주택 및 농경지 상습침수 등 재해예방을 위한 고수면 와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371억원)과 아산면 대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330억원)을 건의했다.

해양수산부 서정호 어촌양식정책과장을 만나 고창어민의 삶의 터전인 지주식 김양식 보존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절차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정부 조용범 사회예산심의관을 만나 국제 카누 슬라럼 경가장 조성사업(200억원) 반영을 건의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군 주요 현안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변화와 성장 미래를 여는 고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축사 악취 해결·민원 최소화 위한 전략 모색

부안군은 최근 부서간 협업·지원 체계 개선을 통한 축사 악취 문제 해결 및 민원 최소화를 위해 정화영 부군수 주재로 축사 악취 협업 전략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농업정책과, 축산과, 환경과, 농업기술센터 등 축산업 지원 및 악취 등을 관리하는 전 부서가 참석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부서 간 협업·지원 체계 개선, 축사 악취 저감 시설 설치 현황, 퇴비 및 비료 살포 문제 해결 방안, 부숙도 검사 협조 등이 다뤄졌다.

회의에서는 악취 문제의 주요 원인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뒀으며 특히 각 부서별 추진하는 사업과 지원 시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과 협업을 통한 축사 악취 저감방안을 토론했고 지속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할 것 등을 강조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부안군, 출생아 수 증가…유의미한 성과 다양한 인구정책 결과로 평가, 2008년 이후 최고치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지난 2024년 출생아 수가 153명으로 전년 대비 23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감소세를 이어오던 출생아 수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된 것으로 군의 다양한 인구정책 및 지역사회 각계 노력의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자료에 따르면 군 출생아 수는 지난 2023년 130명에서 2024년 153명으로 23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17.69% 증가한 수치로 정부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공표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최고치이다.

군은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결혼 생활 정착을 돕기 위해 결혼장려금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가임기 여성부터 출산 가정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특히 부안군 보건소에서는 군에 거주하면서 혼인신고를 하고 셋째까지 낳으면 최대 2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임신부 교통비 지원금 최대 70만원 등 임신·출산 지원 모자보건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상서면 거서마을 출신인 이정권 ㈜DH글로벌은 올해 첫 출생아 가정에 축하 기념품으로 세탁기를 전달하며 아기 탄생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도 했다.

이정권 회장은 “2020년부터 매년 부안 첫 출생아 가정에 축하 기념품으로 가전제품을 선물해 오고 있다.

이정권 회장은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원할 예정이다. 부안군 저출생 위기 극복에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오승경 의원, 새만금신항 신규국가관리무역항 지정 촉구

김제시의회 오승경 의원이 지난 10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새만금 신항과 관련된 소모적 논쟁 중단을 요구하고, 성공적인 개항을 위한 신규 국가관리무역항 지정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새만금신항이 독립적인 항만 기능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산항의 부족함으로 지정하지는 군산시의 억지 주장이 지속되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새만금신항이 2026년 개항을 앞두고 있음에도 현행 항만법상 무역항으로 지정되지 않아 원활한 운영이 어려울 것을 우려하며 신규 국가관리무역항 지정을 통해 법적·행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만금신항이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및 ‘새만금 기본계획’에 명시된 것처럼 새만금 내부개발을 지원하는 항만으로서 식품, 수소, 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중심의 특화 화물을 취급하는 독자적인 물류 거점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성공적인 개항을 위해 ▲새만금신항과 방조제 간 수로 매립을 통한 항만배후단지 확보 ▲식품폴드체인 및 그린수소산업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유치 및 투자 활성화 지원책 마련 등을 적극 요청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식품산업연구원 지원사업, 지역 경제 활력 기여 참여기업 35억원 매출 상향·8명 고용창출 이뤄내

(재)고창식품산업연구원이 ‘고창 특화자원 기반 관광상품 고도화 지원사업’을 통해 35억원 상당의 관내 기업들의 매출 향상을 위한 고창창출을 이뤄냈다고 12일 밝혔다.

‘시군구연구고산업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특화자원기반 관광상품 고도화 지원’에는 고창군 관내 14개 식품기업이 참여했다.

연구원은 8개 분야, 32개의 맞춤형 사업과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사임당푸드(영)는 시제품 제작 및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으로 고창 특화자원을 활용한 제품을 출시했다.

또한 사업기간 중 매출 10억원과 3명

의 고용 창출성과를 이뤄냈다.

아이보리(영)는 마케팅과 디자인 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신제품 출시와 더불어 매출 10억원 이상을 달성했다.

이외에도 연구원은 관광상품 인식개선 교육, 컨설팅 프로그램으로 기업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은 물론 박람회와 팸투어 운영을 통해 관내 기업 제품홍보 촉진과 고창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였다.

박생기 고창식품산업연구원장은 “앞으로도 고창의 특화자원을 바탕으로 기업과 지역 경제의 변화와 성장, 미래를 여는 고창을 위한 농식품 기업들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농지법·산지법 시행 이전 지목 현실화 추진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오는 2026년까지 농지법과 산지법 시행 이전에 형질변경된 토지의 지목을 현실화하는 사업을 비예산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오래전부터 집이나 창고가 있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목이 전, 답, 임야로 돼 있어 매매·증여 등 토지거래의 제한으로 시민 불편이 대두돼 온 것에 따른 것이다.

시는 해당 토지에 대해 토지현황과 지목을 일치시켜 토지의 가치를 높이고 거래에 대한 불편을 해소해 시민 경제생활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재산세(주택) 과세 대상 등 행정자료를 통해 1만5천여 필지를 추출했으며 현지조사와 과거 축백 항공사진을 통해 지목변경 대상 토지를 최종확정하게 된다.

이후, 확정된 토지에 대해 소유자(상속자)에게 지목변경 신청서를 받아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토지소유자(상속자)에게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부과 등을 안내해 과세부담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김제=온봉기 기자

(재)고창문화관광재단, 하계올림픽 전북유치기원철탄지동참

(재)고창문화관광재단이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GBCH 철탄지’에 동참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시작으로 관내 주요 기관 단체장 등 지역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GBCH 철탄지’는 전북의 올림픽 유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범도민 캠페인으로 국내 후보 도시를 결정하는 오는 2월 말까지 진행 된다.

성홍택 고창군 자원봉사센터장의 지목을 받고 철탄지에 동참한 조창환 상임이사와 이문식 센터장을 비롯한 직원이 함께 ‘도민의 뜻 모아! 힘 모아! 2036 하계올림픽은 전북에서!’란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응원 릴레이에 참여했다.

조창환 상임이사는 “우리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하계올림픽이 전북에서 유치돼 지역 발전의 균형을 이루고, K-문화수도 전북이 세계적인 스포츠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고창문화관광재단과 고창문화도시센터가 앞장 서서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조창환 상임이사는 다음 주자로 고창식품산업연구원 박생기 원장을 지목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 대상자 모집…3월 7일까지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고령화 사회에 맞춰 지역주민의 치매 예방을 위한 한의약을 활용한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건소는 지난 2024년 김제시한의사회와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 업무 협약을 맺고, 본 사업을 통해 치매 이환 가능성이 높은 경도인지장애자 및 인지저하자들에 대한 선제적 관리에 돌입한다.

25년에도 김제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60세 이상 경도인지장애자 및 인지저하자 50명을 모집해 관내 14개 지정 한의원에서 한의치료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은 치매조기검진(CIST 및 CERAD-K) 결과 치매 고위험군으로 판정된 경도인지장애자 및 인지저자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다. 주요 지원 내용은 4개월 이상 한약 및 침구치료비 등 1인당 70만원을 무상 제공한다.

또한 사업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사전·사후 인지선별검사(CIST), 만족도 조사 등을 한의원과 치매안심센터의 협업으로 진행하게 된다.

한편, 이번 사업은 오는 3월 7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 치매안심센터(063-540-4311~4312)로 문의하면 된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농작물 피해 최소화 및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총력”

고창군농업기술센터가 지난 11일 농업기술센터 3층 회의실에서 행정기관, 농업인 대표 등 관계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작물 병해충 예방·방제 협의회’를 열었다.

올해 고창군 병해충 예방·방제 총사업비는 18억3000만원이다.

사업별로는 ▲고창군 벼 전체면적(1만 1115ha) 육묘 상자처리제(14억5600만원) 지원 ▲무·배추(729ha) 뿌리혹병 방제약제(1억8300만원) 지원 ▲미국산너별레, 갈색날개매미충 등 돌발해충 적용약제(4800만원) 지원 ▲신규사업으로 과수 탄저병 방제약제 및 토마토뽕나방 약제 지원이 추가됐다.

특히 이번 협의회에서는 최근 강조되고 있는 과수탄저병, 토마토뽕나방 예방 및 방제 방안과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의무 교육 시행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현행일 고창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폭염 장기화와 이상기후로 인해 병해충 발생이 증가하고 외래 병해충 유입이 심각해지는 상황이다”며 “철저한 예방과 방제가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에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순창 ‘조상 땅 찾아주기’ 군민 권익 보호

순창군, 지적전산자료 활용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로 토지 파악 도와
지난해 1,428필지 토지 확인…군민 재산권 행사 지원

순창군은 재산관리 소홀이나 갑작스러운 사고 등으로 인해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군민들을 위해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해 조상 또는 본인 명의의 토지소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 군민들이 자신의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해마다 많은 군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총 395명이 신청해 이 가운데 258명이 1,428필지, 약 132만 5천㎡의 토지를 확인했다. 이를 통해 상속권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고, 미처 알

지 못했던 토지를 찾게 됨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서비스 신청 대상은 토지소유자 본인 뿐만 아니라 사망자의 재산 상속인 및 상속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포함된다. 다만, 1960년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재산 상속의 경우 당시 법률에 따라 장자 상속이 원칙이므로, 호주 상속인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위해서는 사망자의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신청인은 신분증을 지참해 순창군청 민원실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간편 조회도 가능해 ‘정부24(gov.kr)’, ‘국가공간정보포

털(nsdi.go.kr)’, ‘K-Geo플랫폼(kgeop.go.kr)’을 이용하면 보다 손쉽게 조상 땅을 확인할 수 있다.

단,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신분증 사본에는 반드시 자필 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는 순창군민이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하고, 무료로 제공되므로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해 조상 소유의 토지를 찾아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민원과 토지팀(650-141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전북 유일 8년 연속 민원서비스 ‘우수’ 선정

행정안전부 민원서비스 평가… 군민 중심·사회적 배려대상자 시책 등 호평

완주군이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전북 자치도에서 유일하게 8년 연속 우수기관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12일 완주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부 업무평가의 일환으로 매년 민원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민원서비스는 중앙행정기관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 전국 총 307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행정전력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민원만족도 등 5개 분야 20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군은 기관장이 간담회를 통해 민원업무담당자와 군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어려움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등 민원인의 입장을 먼저 배려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이 호평을 받았다.



완주군이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유일하게 8년 연속 우수기관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또한, 도움벨방 운영, 의무적 보호조치 이행강화(녹음전화, 안전가림막, 휴대용 보호장비 비치), 장애인을 위한 화상전화기와 점자책자를 비치해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시책도 활발히 추

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매주 친절교육을 실시해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기본소양 능력 향상에 노력해 지표 전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완주=김명곤 기자

최경식 남원시장 소통행정 ‘시민공감 열린대화’, 큰 호응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시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는 ‘2025년 시민공감 열린대화’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 1월 20일 운봉읍을 시작으로 남원의 23개 읍·면·동을 직접 찾아가며 지역 주민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열린 대화의 핵심은 단순한 의견 청취를 넘어, 남원의 미래 발전 방향을 시민과 함께 설계하는 자리로 열린 대화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직접 생활속 불편 사항과 정책 제안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최경식 시장은 “현장에서 직접 듣고, 보고, 해결하는 열린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며 “남원의 미래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역발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열린대화를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은 일회성 검토에 그치지 않고, 분기별 점검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소관 부서에서 검토 후 안전과 직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2회 추가경

정예산에 반영해 시민들이 안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2025년 시민공감 열린대화’는 오는 19일까지 계속되며, 남원시장이 직접 읍·면·동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그린 리모델링’ 추진

총사업비 2억원 투입 가구당 800만원 범위 내 집수리 지원…21일까지 신청 접수

순창군이 주거 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따뜻한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총 26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총사업비 총 2억원을 투입해 한 가구당 최대 800만원 범위 내에서 집수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건축허가(신고) 절차가 필요 없는 개·보수 공사로, 주요 지원 내용은 △단열벽체 시공 △고효율 창호·보일러 설치 △문턱 제거와 장판 보수

△화장실·주방 개보수 등이 포함된다. 특히, 지붕 개량(슬레이트와 강판 교체)과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교체하는 정화조 공사의 경우 최대 1,0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 외 저소득 가구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집수리가 어려운 가정을 돕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오는 21일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낡고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 춘향제, ‘MZ세대’ 홍보 요원 모집!

이달 20일까지…대학생 개인·팀 SNS홍보단 접수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다양한 SNS 매체를 통해 남원시와 춘향제의 숨은 매력을 알릴 ‘제1기 대학생 SNS 홍보단’을 모집한다.

대학생 SNS 홍보단은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통해 관광, 축제, 명소, 맛집 등 지역 전반을 알리는 온라인 홍보대사이다. 모집기간은 오는 20일까지이며 선발 인원은 30팀으로 기자팀 20팀, 영상콘텐츠팀 10팀을 모집한다. 평소 남원시와 춘향제에 관심이 많고 스마트폰, 디지털기기에 능숙하며 매일 1건 이상의 창작 콘텐츠를 직접 제작할 수 있는 대학

생(휴학생 포함) 또는 대학생이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최대 3인)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포스터 QR 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경력을 종합 평가해 선발하며, 보유한 SNS 채널의 활동지수가 높거나 외국인 학생의 경우 가산점이 부여된다. 선발 인원은 2월 21일 개별 통보한다.

SNS 홍보단으로 최종 선발되면 위촉일로부터 약 3개월간 남원시 춘향제 축제, 시장 소식, 관광, 명소, 맛집, 문화, 생활정보를 취재해 SNS 콘텐츠로 소개하게 된다.

오리엔테이션 및 SNS활용 전문 교육을 거쳐 기자증을 발급받게 되며 매일 1건 이상의 콘텐츠를 작성한다. 콘텐츠 채택 시 원고료(기자팀 5만원, 영상콘텐츠팀 10만원) 지급되며, 우수활동자로 선정되면 95회 춘향제 방문 시 숙박료 및 취재비 지원은 물론 무료 한복대여, 길놀이 참여 프로그램 우선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의회 “일방적 통합 추진, 시군 분열 불씨 될 것”



완주군의회(의장 유의식)가 12일 제29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개최식을 갖고, 14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유의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10일 월요일 지방시대위원회 방문을 거론하며, 통합 논의는 오직 주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발언을 열었다. 유의장은 “완주전주 통합이 전북도와 전주시에 일방적으로 추진 된 점과

행정 효율성을 가장한 전북 시군간의 갈등과 분열의 불씨가 될 것, 그간의 완주군이 이룬 발전과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 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결만 번지르르한 통합이 아니라, 한계에 다다른 민생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시키는데 완주군의회와 완주군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치인이나 행정가가 아닌 군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 1번지의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해 힘을 모아 나가자”고 주장했다.

제29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에는 각종 조례안 심의를 비롯해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실시한다. /완주=김명곤 기자

“완주미래행복센터 교육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해야”

완주미래행복센터가 교육·돌봄 전반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완주군의회)은 12일 완주군의회 임시회에서 통해 “완주미래행복센터는 지난 2023년 8월, 아동·청소년은 물론 귀농귀촌과 로컬푸드를 아우를 수 있는 거점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인근 지역 돌봄센터 정도의 역할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올해 미래행복센터 운영 목표 또한 지역별 돌봄 중심으로 진화되고 있다”며 “이는 개관 당시 밝힌 교육과 돌봄의 통합적 운영이라는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방과 후 교육·돌봄

정책 수립, 지역사회 교육환경 개선과 지원체계 구축, 귀농귀촌 인구 정착 지원, 로컬푸드 경쟁력 강화 등 완주군 미래행복센터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지역사회 교육환경 개선과 지원체계 구축 위한 교육정책 개발 집중 ▲귀농귀촌 자녀 대상 교육 인프라 구축 ▲돌봄 사업 추진 시 도농지역 지역 균형 방안 마련 ▲완주군 내 아동·청소년 기관 연계한 네트워크 기능 강화 등 완주미래행복센터의 운영 방향을 제안했다.

끝으로, 이주갑 의원은 “완주군수님과 관계 부서는 완주미래행복센터가 진정한 교육·돌봄 컨트롤타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비전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며 적극 검토와 추진을 당부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순창, 노인돌봄종사자 ‘구강건강리더’ 신설 육성

순창군이 노인 돌봄 종사자인 요양보호사와 생활지원사를 대상으로 구강건강리더 육성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노인의 구강 질환 예방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설됐으며, 돌봄 종사자가 직접 노인의 구강 건강을 지도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은 지난 11일 예산제가복지센터 종사자 55명을 시작으로, 순창군 내 28개 복지시설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구강건강증과 잇몸질

한 등 노년층에서 흔히 발생하는 구강 건강 문제의 예방과 관리 방법으로 구성되며, 이를 통해 돌봄 종사자가 방문 돌봄 서비스 시 노인의 구강 건강을 직접 지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보건 의료원의 구강 전문 인력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효과적인 구강 건강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보건 의료원(650-5246)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보건소, 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집중 영양관리’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이달부터 영양관리가 필요한 어르신 60여명을 선정해 찾아가는 집중 영양관리 방문서비스 추진을 시작한다.

남원시보건소 방문보건팀(영양사, 방문간호사)의 집중 영양관리사업은 영양관리 상태가 취약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상태, 만성질환의 유무, 신체적 변화 등을 고려한 개인 특성별 영양상담 및 방문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건강행태 개선 및 만성질환 합병증을 최소화하고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근육손실 및 하악예방을 위해 방문건강관리사업과 AI-Io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을 병행해 운영한다.

전년도 상담횟수는 총 600회, 개인별 10회로 읍·면지역까지 확대 운영했으며 건강측정(빈혈, 체성분, 혈압, 혈당, 총 콜레스테롤), 국·짜개의 염도측정, 만성질환 관리 교육, 맞춤형 건강·영양 상담을 실시해 건강증진 효과와 영양 결핍에 도움이 되는 균형 영양식 제공으로 만족도조사 결과 93%의 매우만족으로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 겨울방학 공예 프로그램 운영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이 창의력과 손재주를 키울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 ‘나도 공예가’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문 공예가가 직접 지도하며, 공예의 기본 원리를 배우고 있다.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자신의 성격이 담긴 MBTI 팔찌 만들기 ▲클레이로 캐릭터 시계 만들기 ▲분식 미니어처 만들기다. 청소년들이 창의적 사고를 발휘해 자신만의 개성 있는 작품을 만들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다.

최정선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 관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돼 기획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의 자기 표현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은 완주군의 청소년정책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모집 중이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시, 유기질비료 공급 협의회 열어… “신속·원활히 지원할 것”

남원시가 2025년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10일 유기질비료 공급관리협의회를 개최하고, 농가별 유기질비료 공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관리협의회의는 관련 부서와 농업인 대표, 농업시지부, 유기질비료 구매조합 등이 참석해 농가별 공급물량과 공급업체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안건들이 논의됐으며, 농가의 요구와 예산을 고려해 최적의 공급 기준이 마련됐다.

남원시는 농가별 유기질비료 공급을 위해 사전 신청 접수를 받고, 각 농가의 재배 작물과 토양 상태에 맞는 유기질비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비료 공급 후에도 지속적인 품질 점검과 관리가 이뤄져 농업인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비료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지역 농가들의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을 지원하고, 친환경 농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유기질비료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공급해 농가의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자질이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장수군 장계면, 쌀·성금 등 따뜻한 기부 행렬 이어져

장수군 장계면에 지역 단체와 기관들의 따뜻한 나눔이 이어지며 훈훈한 온정을 전하고 있다.

장계무궁화신협(송성수 이사장)은 지난 7일 장계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50만원 상당의 물품(쌀4kg 32포)을 기탁했다.

송성수 이사장은 “이번 기탁은 지역사회의 소외된 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지에서 이루어졌다”며 “이웃들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0일에는 장계면에 위치한 대한불교조계종 성관사(회주 토진스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160만원 상당의 물품(쌀20kg 32포)을 기탁하며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동참했다.

또한 장계탁구동호회(대표 정진환)에서도 30만원 상당의 기부금을 전달하며 “추운 겨울을 나기 힘겹게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조장호 면장은 “매년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장계면 지역사회의 따뜻한 나눔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부안읍 이장협의회·새마을부녀회, 부안군에 각각 1백만원 쾌척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장학금 기부가 잇따르고 있다.

군은 지난 11일 진행한 2025년 부안읍 희망소통대화 행사에서 부안읍 이장협의회(회장 김종만), 부안읍 새마을부녀회(회장 강명례)가 각각 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부안군 이장협의회의 이번 기부는 7번째 기부이며 부안읍 새마을부녀회도 6번째 기부를 이어갔다.

부안읍 모산마을 주민들도 마을 주민들이 솔선수범해 100만원 기부 행렬에 참여했다.

권익현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은 “뜻깊은 날에 귀한 발걸음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장학금 후원과 지역인재 육성이라는 공익적 가치에 뜻을 같이해주시는 후원자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익산 보부상그룹, 1억 원 상당 영양제 기부

지역 청년기업, 2023년부터 매년 지역사회 위한 나눔 앞장

익산시는 보부상그룹(대표 백두현)이 시청을 방문해 영양제 5,000세트(1억 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기탁식에는 정현을 익산시장과 백두현 대표, 민희수 익산청년시장장이 참석했다. 기탁된 영양제는 다이로움 나눔공간 이용자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보부상그룹은 지역 청년기업으로 ▲보부상바이오파 ▲보부상컴퍼니 ▲건온연컴퍼니 ▲디엔에스



익산시는 보부상그룹이 시청을 방문해 영양제 5,000세트를 기탁했다고 12일 밝혔다.

로지스로 이뤄져 있다. 영양제 제조, 물류, 교육, 유통 사업을 운영하며 2021년 창업 당시 연 매출 2억 원으로 시작해 지난해 연 매출 180억 원을 달성했다. 또한 2023년부터 매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백두현 대표는 “고향인 익산의 이웃을 도울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나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익산=최준호 기자

전통 미풍양속 ‘남원 진기리 느티나무’ 당산제 거행

천연기념물 제281호 지정, 자연 유산 민속행사 보존·계승 위해 남원시가 지원

남원시 보절면 진기리 신기마을회(이장 김문희)는 정월 대보름날인 12일 천연기념물 ‘남원 진기리 느티나무’에서 마을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산제를 거행했다.

‘남원 진기리 느티나무’ 당산제는 우리 고유의 전통 미풍양속으로 자연 유산 민속행사의 보존과 계승을 위해 남원시가 행사를 지원하고 있다.

1982년에 천연기념물 제281호로 지정된 ‘남원 진기리 느티나무’는 추정 수령 600년 이상으로 나무 높이가 약 20m, 둘레 약 93m, 수관 폭은 25m 이상으로 유구한 세월을 지켜온 나무의

위용이 느껴지며, 조선 세조 때 힘이 장사인 우공(禹貢)이라는 무관이 어린 시절 뒷산에서 아릅드리 큰 나무를 맨손으로 뽑아와 마을 앞에 심어놓고 나무를 잘 보호하라는 말을 남기고 마을을 떠난 후 큰 공을 세워 적개공신상등(敵愾功臣三等)에 책록됐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행사를 주관한 김문희 이장은 “앞으로도 600년 동안 마을을 지켜온 당산나무를 잘 보존하고 가꾸면서 고유의 민속문화를 계승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 보절면 진기리 신기마을회는 정월 대보름날인 12일 천연기념물 ‘남원 진기리 느티나무’에서 마을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산제를 거행했다.



전북은행, 군산시에 생필품 꾸러미150상자 전달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군산시에 생필품 꾸러미 150상자(45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12일 기탁식에 참석한 전상의 부행장은 “추운 날씨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성품을 전달했다”라고 밝혔다. 전북은행은 전북을 상징하는 대표은행으로 다양한 사회

공헌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역사회와의 상생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특히 명절, 연말연시 나눔캠페인, 희망의 공부방 지원사업 등 관내 소외계층을 위한 지속적인 나눔으로 지역사회에 귀감으로 자리잡고 있다.

기탁된 성품은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주)태성콘크리트, 완주군 아동들에 3백만원 전달

완주군 용진읍에서 설립 4년째를 맞는 (주)태성콘크리트(대표이사 최태환)가 지역사회 이익 환원에 앞장서며 나눔을 실천했다.

지난 11일 (주)태성콘크리트는 군청을 방문해 완주군의 어려운 아동들의 학업에 써달라며 장학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

최태환 (주)태성콘크리트 대표이사는 “완주군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지역주민들의 관심 속에서

회사가 성장해 올 수 있었다”며 “더욱 건실한 기업으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주)태성콘크리트의 따뜻한 기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업과의 협력으로 지역사회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 기자

농업회사법인 (주)포럼, 무주군에 도라지청 2백 박스 전해

무주군 안성면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주)포럼의 박미란 대표가 지난 12일 무주군에 자사에서 생산한 도라지청 2백 박스(1천2백만 원 상당)를 기탁하며 훈훈함을 전했다.

박미란 대표는 “추운 날씨에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과 복지시설 이용자들의 건강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도라지청을 준비했다”라며 “따뜻하게 드시고 이 겨울,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농업회사법인 (주)포럼(직원 수 18명)은 건강식품(배도라지즙, 홍삼 및 천마 제품 등) 생산업체로 2024년 설 명절에도 간부들이 모금한 1백만 원과 직접 생산한 배도라지즙 1백 박스(3백만 원 상당)를, 추석에는 생천마진액 2백 박스(1천 6백만 원)를 기탁해 귀감이 되기도 했다.

/무주=최의호 기자

(재)고창군장학재단·멜론연합회 등 고창군 향한 기부 행렬

(재)고창군장학재단은 (사)고창멜론연합회(대표 김대현)에서 100만원, (재)문화유산마을(원장 이영덕) 300만원, (유)세영건설(대표 이소영) 300만원을 기탁하는 등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기탁이 이어지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기탁식 참석자는 “지역 인재들을 위해 장학금을 기탁할 수 있어서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덕섭 이사장은 “지역의 인재 육성을 위한 따뜻한 관심에 감사하다”며 “기탁해 주신 장학기금은 다양한 장학사업에 사용해 변화와 성장, 미래를 여는 고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3H(유) 한일온열기, 진안 백운면에 5백만원 상당 전기매트 기탁

3H(유)한일온열기(군산소재) 신마출신 강규봉 대표는 지난 12일 동절기 난방이 취약한 복지사각지대를 위해 따뜻한 마음을 담은 사랑의 전기매트 40개(500만원상당)를 진안군 백운면(면장 이보순)에 기탁했다.

강규봉 대표는 “어려운 이웃들이 난방비 부담을 덜고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번 기부를 하게 됐다”며, “계속되는 한파에 작은 온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보순 백운면장은 “온정의 손길을 보내주신 강규봉께 감사하다”며 “대표님의 이웃사랑, 고향사랑 실천하는 마음에 감사드린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3H(유)한일온열기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기부를 통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전자파 없는 탄소 매트를 주력으로 하고 있다.

/진안=전길빈 기자

겨울에 미세먼지농도가 높아지는 이유



난방으로 인한 연료 사용량 증가로 오염물질 배출량 증가



대기순환이 불안정하고 강수량이 낮아 미세먼지 제거 어려움



추운날씨로 환기가 쉽지 않아 음식조리과정 발생하는 실내미세먼지 농도 증가



추운날씨로 자동차 등의 배기가스가 잘 휘발되지 않음

〈一事一言〉



임만 열면 거짓말…윤석열, 차라리 그 입 다물라(1)

송요훈
언론인

어? 동해에서 대형 유전이 발견됐다는 거야? 아, 그건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로군. 그 정도라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발표해도 될 텐데, 왜 대통령이 긴급 기자회견을 해서 내일이라도 석유가 뿔어 나올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걸까? 참 이상하네.

2024년 6월 3일, 대통령 윤석열은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도 곧 산유국이 될 거라는 '깜짝' 발표를 합니다. 이른바 대왕 프로젝트, 경북 포항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발표였습니다.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 넘게 쓸 수 있는 엄청난 규모라고 했습니다. 조선일보를 필두로 윤석열 친위대 언론은 '산유국의 꿈'이라는 환각제를 열심히 살포했습니다. 기자의 쪽으로 뭘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니다. 시추가 아닌 지질 탐사에서 가능성을 봤다는 것이고, 그 정도라면 대통령이 아닌 산업부 장관이 발표하는 게 적절합니다. 중요한 사안을 있을 때는 기자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언제까지 보도하지 말아 달라는 엠바고 요청을 합니다. 미리 예고를 하는 거죠.

그런데 뭘가 그리 급했는지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산자부 장관이 아닌 대통령이 예정에 없는 기자회견을 열어 서둘러 발표했습니다. 국민에게 감춰져야 마시게 하는 환각 요법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대통령 윤석열의 처

지는 이러했습니다. '김건희 디올백'은 거짓 변명으로 혹 때려다 더 큰 혹을 붙였고, 불리한 선거관세를 뒤집어 보려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카드를 던졌다가 의료사태를 촉발하고는 미제사건으로 마냥 방치하고, 누구의 청탁을 받았는지 해병대 임성근 사단장 구해주려다 격노가 발단이 되어 일이 꼬이기 시작하더니 채 해병 사건은 일파만파로 확대되어 궁지에 몰리고....

윤석열이 난데없이 '동해에 대규모 유전 발견'이라는 깜짝 발표를 했을 때,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거 혹시 궁지에 몰리니까 국민의 관심을 돌리려는 정치쇼 아닌가?

고개를 가우뚱하게 만드는 의문은 많았습니다. 대통령의 깜짝 발표도 그러했지만, 지질 탐사 단계에서 '대규모 유전 가능성'에 도장을 찍어주었다는 외국의 탐사전문업체는 본사 건물이 일반 주택인 1인 기업이었습니다. 호주의 세계적인 유전개발업체는 경제성이 없다며 철수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일컬어 '합리적 의심'이라 합니다. 기자의 취재는 대개 합리적 의심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대다수 언론은 의심을 해소하는 보도가 아닌 감춰둬 달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의 매체들은 '산유국의 꿈이 대구 경북 앞 바다에서 실현된다' '포항은 한 국판 두바이가 되나' '포항 앞바다에서 석유 가스 팔팔 쏟아지

나' '산유국의 꿈, 현실로' 등등 환각 성분이 듬뿍 들어간 기사를 뿌려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거 뭘가 이상한데?' 하고 의문을 제기하면, '너는 나라가 잘 되는 게 싫으냐' '윤석열이 잘 되면 배가 아프냐'는 핀잔을 들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다들 자의반 타의반으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합리적 의심은 결국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에서 윤석열 탄핵 심판 6차 변론이 열린 날에 산자부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1차 시추 결과를 발표했는데, 가스 징후가 일부 발견되었으나 경제성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름과 직책이 익명으로 보도된 산자부의 고위 관계자는 '정무적 영향이 개입됐다.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 정도의 고위 관계자라면 장관이나 차관일 겁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국면전환을 정치쇼였고, 국민에게 환각제 주사를 놓는 희망고문 사기극이었다고 실토한 겁니다.

민주당은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대통령이 저 살자고 국민을 환각에 빠지게 하는 희망 고문에 국민 세금을 낭비해선 안 된다고 판단해서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 윤석열은 야당이 예산 폭격로 국정을 마비시켰다며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의 하나로 거론했습니다. 여당인 국원은 민주당이 삭감한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을 복원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사골곰탕 우려먹듯 저 살자는 국민 기망으로 '대왕고래 프

로젝트'를 계속 우려먹는 겁니다.

그런 사기극은 또 있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전이 그랬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막판 역전극을 펼칠 거라고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한국이 받은 표는 고작 29표, 굳이 수천억 원을 들인 유치전을 하지 않아도 나올 만한 결과였습니다.

민심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은 재벌 총수들을 데리고 부산에 가서 엑스포 유치 실패를 잊게 해줄 선물 보따리를 푸는 정치쇼를 했습니다. 강릉시장에 가서 재벌 총수들을 병풍으로 둘러치고 서민 흉내를 내는 먹방쇼도 했습니다. 엑스포 유치라는 환각제의 효력이 떨어지니 재벌 동원 먹방쇼라는 환각제를 새로 투여한 겁니다. 대다수 언론은 먹방쇼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보도하며 환각제가 잘 스며들도록 바람잡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계속>

본 칼럼은 시민언론 만들레에 기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고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설

정부, '벼 재배면적 조정제' 재검토하라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국내 농업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이 정책이 농민들에게 가져올 부담과 우려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국내 쌀 소비 감소와 국제 곡물 시장의 변화라는 구조적 현실은 부인할 수 없으나,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보다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는 재배면적 조정을 이행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 공공비축미 배정 제외, 지자체에는 공공비축미 물량 감축 및 SOC사업 대상지 선정 평가 반영 등의 제재를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패널리 중심의 접근은 농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정책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농업인들이 정책을 자발적으로 수용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패널리 대신 인센티브 중심의 접근으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공공비축미 우선 배정, 농업 예산 신청 시 우선 배정 등의 혜택을 농업인에게 제공하고 있고, 지자체에는 공공비축미 물량 추가 배정, 농촌 개발 사업 및 식량 관련 정책 사업 선정 시 우대 조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센티브는 농업인과 지자체가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정부는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고 이를 통해 농민과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예컨대 대체 작물 재배를 선택하는 농가에 대해 초기 비용 지원, 기술 교육,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계약재배 시스템 구축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체 작물 전환은 농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려운 과제다. 농민들은 새로운 작물 재배에 대한 기술적 지원과 경제적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전환에 따른 위험 부담을 떠안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농민들이 안심하고 대체 작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술적,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농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정책 이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농업은 단순히 경제적 산업의 하나로 볼 수 없는 국가 식량 안보의 핵심이다. 따라서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한 정책 시행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비전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요구된다. 고품질 쌀 생산 체계를 확립하고 산지유통 구조를 개선하며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재검토하고 농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는 것이야말로 지속가능한 농업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를 바탕으로 농업4법 제정을 재추진하고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 농민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농업 정책을 실현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문화재열전



상주사 대웅전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유적건조물, 불교, 불전
-지정일- 1973년 6월 23일
-시대- 조선시대
-소재지- 군산시 서수면 함안로 57-29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전북뉴스 1991년 4월 4일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 (윤관우)54990 www.jeonbuktimes.co.kr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 (윤관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김관춘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사 010-96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백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JBT

전북타임스신문

도민의 제보가 지역사회 만드는 힘이 됩니다

기사제보-063)282-9600~3

https://www.jeonbuktimes.co.kr

“소리축제는 한국의 보석이고, 그중에서 가장 빛나는 다이아몬드다”

- 레인포레스트 월드뮤직 페스티벌 창립자 랜디 레인 루쉬

23rd
전주
세계
소리
축제

타란타켈타카

전주세계소리축제, 글로벌 축제 반열에 오르다

◆ TWMC ‘베스트 페스티벌 어워드’ 수상... 전 세계 예술감독 호평

◆ 지역 참여 워크그룹 형성... 전북 예술인 참여 기회 확대



전통공연예술제를 표방하는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장 이왕준, 이하 소리축제)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축제로 인정을 받았다.

최근 트랜스글로벌월드뮤직차트(이하 TWMC)는 ‘2024 베스트 페스티벌 어워드’ 결과를 발표, ‘전주세계소리축제’를 2위로 선정했다.

TWMC는 전 세계 30개국 다양한 매체의 월드뮤직과 민속음악 평론가 50여 명의 패널들이 참여하고 있는 음악평론 네트워크로, 이들은 정기적으로 월드뮤직 우수음반 및 축제를 선정해 발표하면서 우수한 음악을 전 세계에 소개하고 있다.

소리축제는 이번 평가에서 ▲음악적 다양성 ▲신진 아티스트에게 제공하는 기회 ▲소통 및 정보제공 ▲관객 경험 ▲물류(접근성 및 편안함) ▲환경적 책임 ▲사회적 책임 등 7개 평가에서 최상위 점수를 기록하면서 타 월드뮤직축제와 비교해 탁월한 성과와 배려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TWMC 베스트 페스티벌 어워드에서 1위로 선정된 바 있는 소리축제는 전통공연예술제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축제는 여류 축제로의 전환을 통해 서울, 충청, 강원, 경상도 등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대거 축제를 참여했을 뿐 만 아니라, 해외 유명한 아티스트들의 교류의 장이 됐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지난해 소리축제를 찾은 캐나다 출신의 작곡가이자 레인포레스트 월드뮤직 페스티벌 창립자(전 감독)인 랜디 레인-루쉬(Randy Raine-Reusch)는 “전 세계에 수많은 축제들이 있지만 소리축제 같은 축제는 없어 매우 귀하다.”

소리축제는 한국의 보석이고, 그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다이아몬드다”면서 “세계와 한국에서 엄청난 예술가들을 한자리에 모아 내는 페스티벌이기 때문”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올해 소리축제는 지역 예술인들의 참여를 높이고, 대한민국을 넘어선 세계

적인 축제 자리를 굳건히 다진다는 계획을 세웠다.

먼저 이달 한 달간 ‘2025 전주세계소리축제’의 가치 확산을 위한 지역기획자 네트워크 간담회를 추진, 축제의 지역 콘텐츠 개발 및 지속적인 지역연대를 도모기로 했다. 소리축제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기획자 간담회를 통해 축제의 발전 방향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지역 참여 워크그룹을 형성해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지역 예술인의 참여를 이끌어 낼 방침이다.

김희선 소리축제 집행위원장은 “소리축제의 글로벌을 향한 도약과 성공 사례는 타 공연예술제의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이번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소리축제만의 어젠다를 발굴해 대한민국을 넘어선 세계적인 공연예술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캐나다리오리엔트빅토리아



볼로시X채슈인